

오타키 계곡

오타키 계곡은 도요타 시가지와 마쓰다이라고 사이에 위치한 고요한 하이킹 명소입니다. 이 계곡은 전체 길이 1.8km에 깊이 148m로, 니오 강에서 하류의 도모에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급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계곡 서쪽 끝에는 묘쇼지 절이 있고, 강의 양쪽 기슭에는 '후도 산 전망대'와 '후쿠로가 성 전망대'라는 두 개의 전망대가 있습니다. 두 전망대 모두 계곡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강변에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는데, 계곡의 동쪽 깊숙이 있는 인적 드문 우타이시 원지와 오타키 호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

계곡에 나무들이 우거져있어서, 강 주변은 조금 어두침침하고 시원해 마치 열대우림 같습니다. 흐르는 물과 함께 나무줄기, 바위, 강에 놓인 다리 등이 있어, 이끼가 자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강 속에 있는 크고 오래된 바위도 이끼로 덮여있으며, 자연 그대로의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.

계곡 입구에서 오타키 호수까지는 도보로 왕복 약 3시간 걸립니다. 호숫가에는 바비큐장을 갖춘 넓은 공원이 있으며, 전체 길이 90m의 새빨간 오타키 호수 다리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. 계곡은 일 년 내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데, 특히 가을의 단풍, 봄의 매화와 벚꽃으로 물드는 계절에 인기가 많습니다.